

투데이 칼럼

정읍 명예의 전당 건립으로 관계인구 늘려야

흔히 지역의 인구와 힘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한다. 즉,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힘이 세진다는 것이고,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청년인구(18~39세) 유출에 따른 지역 인구감소는 교육, 의료 등 지역 생활기반을 붕괴시킨다. 또한 주민세, 재산세 등 세수를 줄게 해 지방재정도 악화시킨다. 나아가 지역상권을 유지할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줄여 지역경제마저 침체시킨다. 정읍도 인구가 날로 줄고 지역 세가 작아져 관련 모두가 고민이 크다. 설상가상 2020년 한 해만도 약 1,400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나갔다.



정 상 섭
정읍시의회 차석행정위원장

우리는 것도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이 전당은 정읍 향토사에서 정읍을 빛낸 인물들과 정읍에 몰입과 재능을 기부하여 정읍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한 역사적 기념공간이어야 한다.

정읍 역사에는 1980년대 체육관, 도서관, 국악원, 정읍사 여인상 등 문화 기반 시설들을 모회사에서 기념관이 정읍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때가 있었다. 지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읍 학생들이 수도관에서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내놓아 인제 양성에 힘써 주시는 분도 계신다.

이렇게 정읍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직선(積善)과 덕행(德行)의 높은 기치를 기념관을 통해 기리고 보은의 예를 갖추는 것은 정읍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평소 그분들이나 그 후손들과 유대를 갖고 시민의 날 같은 때 기념관에 초대해 감사의 예를 다하면, 그분들이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선덕을 베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수구초삼이라고 했다. 예산은 무형의 인적 자산으로 지역

을 크게 발전시킬 이런 곳에 써야 한다. 이 전당의 건립 방법은 바야직은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하되, 시설비용은 가능한 많은 시민이 십시일반 자발적 기부형태로 마련해도 좋다. 그것이 기부자의 은혜에 대한 보은이고 애향심이다.

만약 해당 관련자가 원한다면 직접 출연(出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념실에는 활약한 분야별로 인물 실을 만들거나, 특히 현재 정읍발전과 정읍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들은 기여자의 소장품들도 기증받아 개인별 기념실을 만들면 전당의 운영과 보존관리에 애착심도 커질 것이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앞서간 위인들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 그분들의 삶의 방식, 태도, 추구했던 가치들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의 삶도 훌륭하

지만, 그 지역 후세들에게도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 전당은 지역과 국가를 위해 바르게 잘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사표관이자, 정읍 사람들이 이 지역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교훈관이며, 현재 정읍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큰 실용관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읍 사람들이 이 역사관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바른 삶의 자세를 실천하며, 남의 선덕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지역풍토를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다.

누구나 지역을 위해 큰일을 하신 분은 지역이 칭송하고 보은함으로써, 더 많은 분의 역량이 지역에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부의 사회 환원으로 함께 바르게 잘사는 사회로 만드는 가이만 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물결은 넘겨줬지만, 정은 메달라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시대, 커지는 빈부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도 노블레스오블리제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기부자들이 늘어나도록 사색을 해야 한다. 인구 늘리기 한계에서 벗어나 28만 명이 정읍에 정주하는 시세 효과를 낼 관계인구를 늘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현재 10만 명 남짓한 정읍의 인구로 인위적인 시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17만 출향인들과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이어 줄 정읍 명예의 전당 건립을 조속히 착수한다. 그것이 스물 위기를 막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희망찬 정읍을 만드는 길이다.

사설

응급상황 대비 국가지점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에 대한 정비와 보강이 강조되고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다.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물은 없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 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지점 번호는 국토와 인접한 해안을 격자형으로 일정 간격씩 나눠 각 지점에 부여한 고유번호다.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 지역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 표시 체계다. 이전에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 지역의 위치를 소방서·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위치 표시 방식이 달라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기관별로 위치 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표시 방식을 단순 규격화 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 번호를 알리면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 위치 정보를 공유해 빠르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지점 번호판은 주기적인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일체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에도 등록된다. 국가지점 번호를 표기하는 지역은 건물에 비해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있거나 철도,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이 있는 곳이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국가지점 번호판 366개 가운데 100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266개의 번호판은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 번호판 식별이 난해해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곳은 태양광 발광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전북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유입과 청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도 청년혁신가들을 꾸준히 배치해 사업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2년간의 인건비 지원과 지원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창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 현재 도내에는 141개 사회적경제 사업장에서 186명의 청년혁신가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서 마케팅·사무·기획·행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최근 전북 도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들이 '제28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판로 개척 활동의 전반기 청년혁신가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전북 도내 청년혁신가 이은광(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 냉식품)씨는 "스스로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 마케팅 전략을 고

민해 보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홀플러스가 최근 6개 지자체단체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소공물 입점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에 나섰다.

홀플러스는 온라인 물에 '사회적경제 상품관'을 새로 만들고 각 시·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입점 시킨다는 계획이다. 197개 기업, 1289개 상품이 입점 대상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홀플러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유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도의 유통지원센터도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판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산사태 현장 수색하는 일본 구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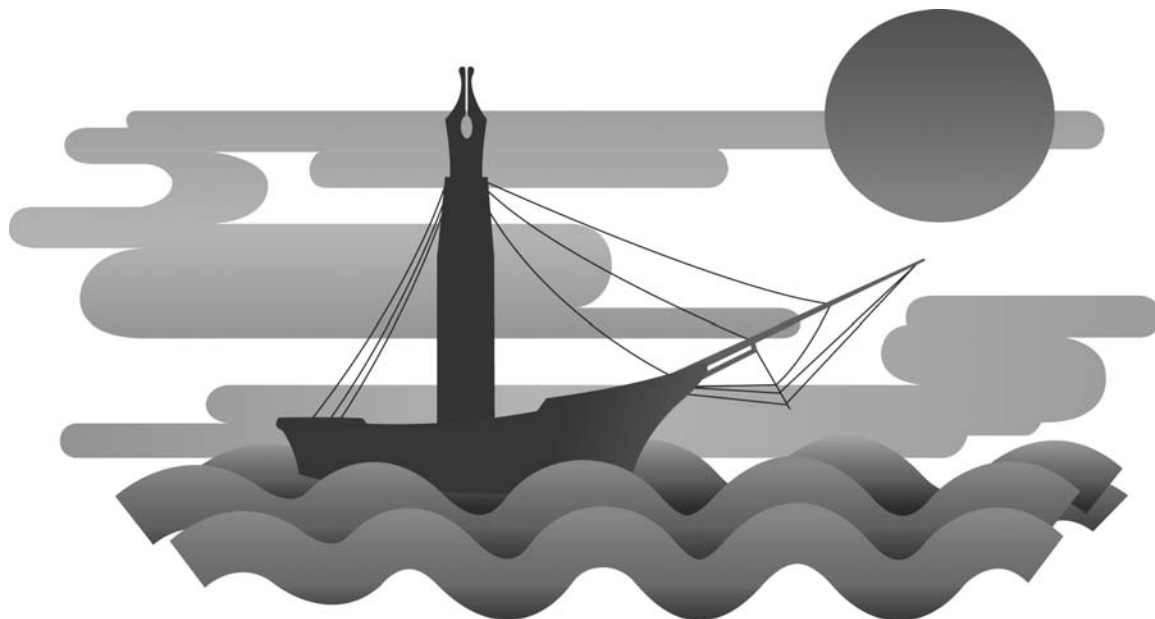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5일(현지시간) 일본 시즈오카현 이타미의 이즈산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대가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다.

폭파 철거되는 미국 아파트 잔여 건물



4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에서 일부 붕괴한 12층 아파트의 나머지 건물이 추가 붕괴 등의 위험으로 폭파 철거되고 있다. 서프사이드 시는 지난달 24일 1387구 중 567구가 무너진 아파트의 남은 부분에서도 붕괴가 우려되면서 5일 예상되는 열대성 허리케인 '엘사'의 상륙 전에 철거를 끝내기로 하고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